

봄(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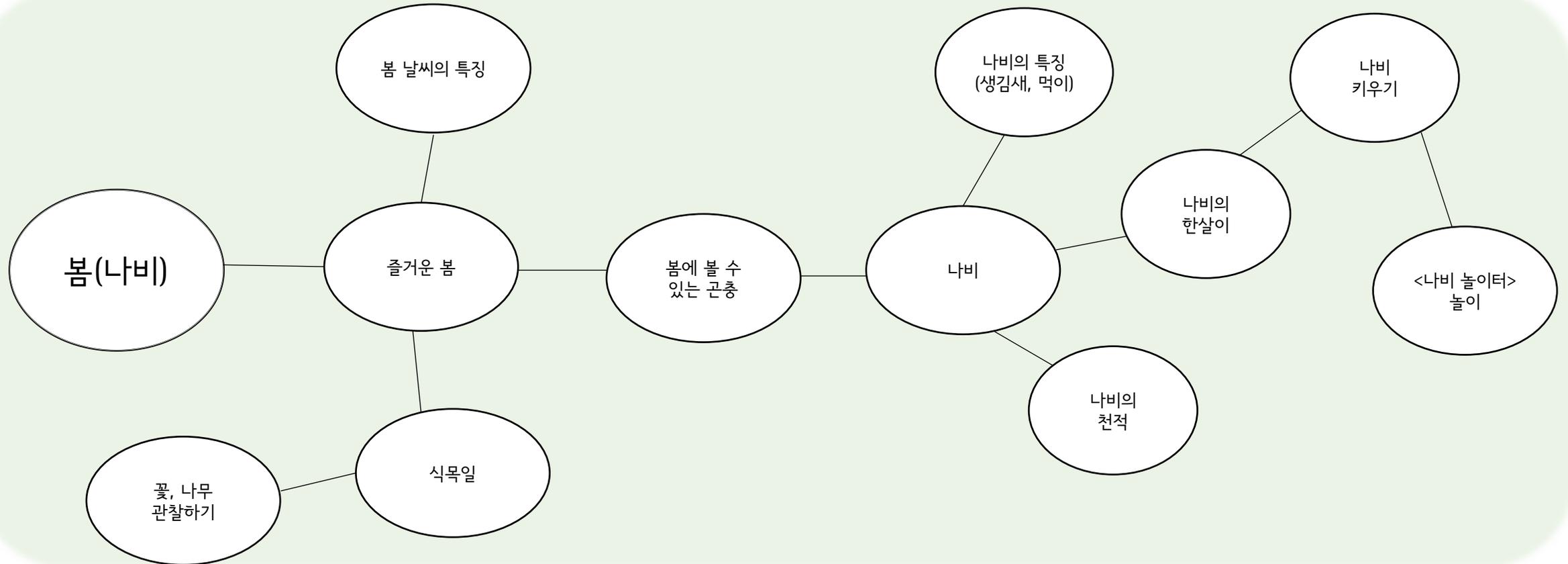
2021.4.5~2021.5.28
몸튼튼반 친구들의 즐거운 놀이

'봄(나비)' 주제를 시작하게 된 계기

식목일을 맞아 나무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유치원에 핀 다양한 꽃들을 탐색하던 친구들과 따뜻해진 봄 날씨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봄이 되어 달라진 사람들의 생활, 동식물의 생태 변화를 알아보던 중 창 밖을 날아다니는 '나비'에 관심을 보이며 친구들과 나비와 관련된 다양한 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아의 흥미를 반영한 놀이 흐름도(4.5.~ 5.28.)



봄이 왔어요~!



◀식목일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며 우리 유치원의 많은 나무들에 대해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무를 관찰하던 중 나무에 돋아나 있는 새순을 발견하여 봄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 '후~꽃이 날아가요'
유치원 화단에 피어나는 민들레 꽃의 홀씨를 붙어보며 <봄에 피는 꽃>을 관찰하고 바비큐 파티에 고기와 함께 먹을 상추, 오이 등을 하늘정원에 심었습니다.

▼나무를 관찰하며 이동하고 있는 개미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따뜻한 봄 햇살을 맞으며 즐겁게 놀이합니다.

우와~ 알록달록 모여 있는 공 모양 꽃이야.





▲ 봄비가 오는 모습을 보고 봄날씨의 특징인 '봄비' 가 내리는 소리, 봄비가 주는 도움을 알아보며 물감으로 표현해봤습니다.



<1. 물에 물감 섞기>



<2. 주방세제 넣기>



<3. 거품 관찰하기>



<4. 거품 찍기>

나비가 좋아하는
꽃을 따라 가보자~!



나비가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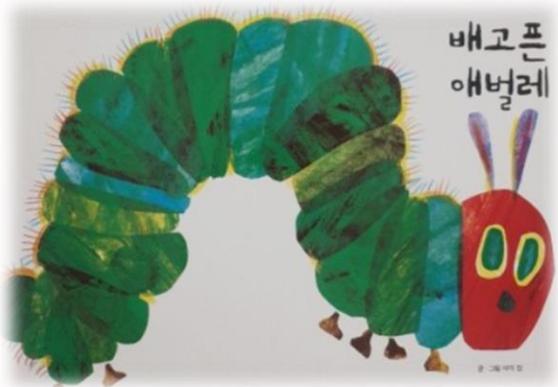


▲ 복도를 다니던 중 창 밖을 날아다니는 나비의 모습을 보고 '나비'에 관심을 가지며 나비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 하여 '나비'에 관한 책들을 보며 나비에 더욱 관심 가졌습니다.



"나비가 날아가요"
꽃이며 봄비며 봄에 대해 흥미를 느끼던 친구들은 복도를 지나가다 우연히 창문 밖에 날아다니는 흰나비를 보고는 바깥놀이터로 나비를 쫓아가며 나비에 대해 궁금한 것들로 가득해졌습니다.

배고픈 애벌레



▲ 나비가 되는 '배고픈 애벌레'라는 그림책을 본 후 애벌레에게 주고 싶은 음식을 그림으로 그려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은 애벌레가 배가 아프다는 내용을 본 몸튼튼반 친구들은 '그럼 애벌레는 뭘 먹어야 배가 안아프지?'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이며 애벌레의 먹이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어~!
애벌레가 먹었나봐!



▲ 나비아벌레는 나뭇잎을 먹어야 한다며 바깥놀이터에서 애벌레가 먹은 나뭇잎을 모아와 관찰했습니다. 나뭇잎의 잎맥을 관찰하여 꾸며본 후 애벌레가 먹은 흔적처럼 구멍을 뚫어주고 클레이로 만든 나만의 애벌레를 올려주었습니다.

꽃을 좋아하는 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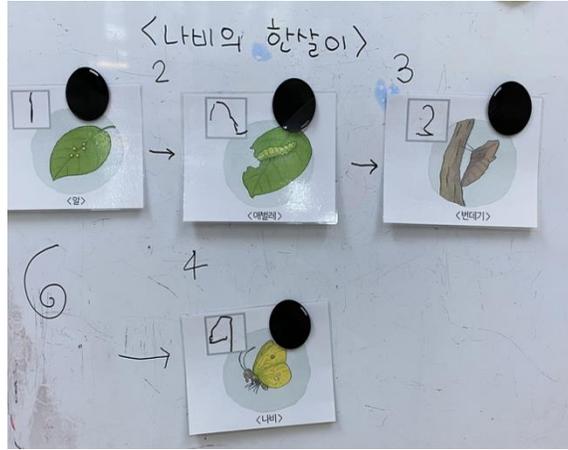


▲그림책을 통해 '나비'에 대해 알아보던 중 '나비는 더듬이로 냄새를 맡아요.', '나비는 꽃에 있는 꿀을 먹어요.', '꿀을 먹을 때 입을 빨대처럼 쪽 펴서 먹어요.' 등 새로운 정보들을 알게 되었고 친구들은 꽃을 좋아하는 나비를 위해 꽃밭을 꾸며주며 도일리페이퍼로 만든 나비로 라이트테이블 위에서 재밌게 놀이를 했습니다.

▼나비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며 '나비는 왜 꽃을 돌아다니지?', '꽃을 왜 좋아하는걸까?' 라는 의문점을 가진 몸튼튼반 친구들은 꽃에 있는 꿀을 먹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나비가 되어 <꿀 과자 먹고 오기> 게임을 했습니다.



나비의 성장과정



◀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며 '나비의 한살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 바깥놀이터에서 놀이하며 발견한 굴뚝이를 보고 몸튼튼반 친구들은 나비 애벌레의 모습도 궁금해하였습니다.



<1. 알의 모습>



<2. 애벌레 모습>



<3. 번데기 모습>



<4. 나비 모습>

▲ 나비를 본 경험을 떠올리며 영상 자료를 통해 나비의 성장과정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나비의 성장과정을 신체로 표현해보며 나비의 특징에 관심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나비야 어떻게 생겼니?"
 봄에 볼 수 있는 곤충들 중 '나비'에 관심을 갖는 몸튼튼반 친구들과 나비의 생김새, 특징, 성장과정을 알아보며 신체로도 표현했습니다.
 나비 애벌레의 모습을 궁금해하며 교실에서 직접 나비를 키워보기로 했습니다.

나비 키우기



◀ 교실에 온 나비알을 직접 관찰하고 돌보며 알에서 애벌레가 태어나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 알에서 실 같이 얇은 애벌레가 태어났어요. 나뭇잎을 케일화분에 옮겨 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나비야 케일잎 먹고 잘 자라야해~!



애벌레가 통을 엄청 많이 싸서! 새로운 잎을 줘야 되겠는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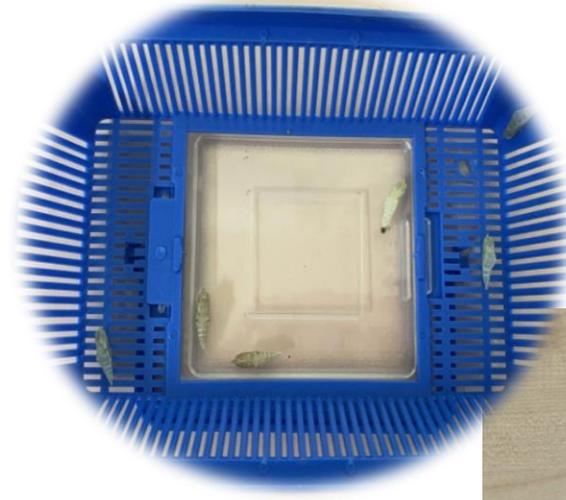
▲ 케일 화분에 옮겨준 애벌레들이 케일잎을 먹고 점점 자라는 모습을 관찰해보았습니다. '애벌레의 먹이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텃밭에서 가지고 오자.' 라고 이야기하며 케일 모종을 심어주었습니다. 애벌레가 나뭇잎을 먹고 나뭇잎 위에 통을 싸서 새로운 케일잎에 옮겨 주기도 하며 나비 애벌레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나비가 태어났어요~!



▲ 하루하루 유치원에 올때마다 변화되는 번데기를 보며 친구들은 무척 신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림책에서 본 것처럼 나비가 날개가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늘 정원으로 가서 날려주었습니다. 텃밭 식물에 물을 주며 마비가 잘 날아다니는 모습도 확인하며 '나비야 잘 지내.', '또 놀러와~'라고 인사도 해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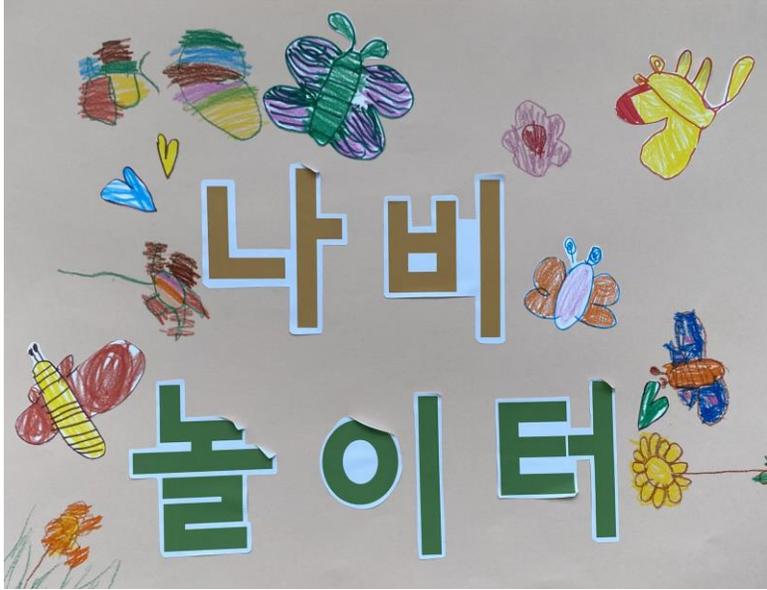
▼ 교실로 돌아와 나비가 나온 번데기의 허물을 보여주니 신기해하며 만져보기도 하고 '번데기 색깔이 하얗졌어.', '그림으로 그려볼래요.' 라고 말하며 관찰하여 그림으로도 표현해주었습니다.



"나비가 태어났어요!"

약 한 달간, 나비 알에서부터 나비가 되기까지의 성장과정을 실제로 관찰해보며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림책과 영상으로만 보던 <나비의 한살이>를 매일 조심조심 관찰하며 눈앞에서 변화하는 과정을 실물로 관찰하니 몸튼튼반 친구들은 나비에 대해 더욱 더 깊은 관심을 가지며 이후로도 바깥놀이터, 하늘정원, 창 밖으로 보이는 나비에게 손 흔들며 인사해주며 '우리가 날려준 나비예요.'라고 말하며 반가워하는 사랑스러운 몸튼튼반 친구들이었습니다.

나비 놀이터



<간판 꾸미기>



<나비 성 놀이>



알에서부터 성장과정을 지켜보며 나비를 지켜본 친구들은 '나비랑 놀고싶어요'라며 <나비 놀이터> 놀이를 하였습니다. <나비 놀이터> 놀이에 필요한 여러 준비를 하며 '나비'에 대해 많이 알게 된 몸튼튼반 친구들은 '나비 박사증'도 수여받았습니다.



<나비 날개 꾸미기>



<나비 피리 만들기>



<조물락 점토 놀이>

나비 놀이터



<간판 꾸미기>



<나비 성 놀이>



<나비 날개 꾸미기>



<나비 피리 만들기>



<조물락 점토 놀이>

"나비를 알아보며!"

우리나라의 사계절 중 '봄' 날씨의 특징에 대해 경험하며 유아들과 밀접하게 관련 된 자연과 동식물에 관심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중 창밖을 날아다니는 '나비' 에게 인사 해주며 관심 가지는 몸튼튼반 친구들과 그림책을 통해 나비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알아보며 실제로 나비를 키워보고 나비의 성장과정을 가까이에서 하루하루 관찰하면서 알에서부터 애벌레, 번데기, 나비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며 생명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